



무등산 중봉 가을바람 4일 광주 무등산국립공원 중봉 등산로에 만개한 억새가 바람에 흔들리며 장관을 이루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지리산 20일·월출산 23일 단풍 절정

평년보다 3일 늦어...내장산 23일·무등산 30일 등 이달말 물들어

설악산에 올 가을 첫 단풍이 관측된 것을 시작으로 이달 말께 전국 대부분 산지가 울긋불긋 물들 것으로 예측된다.
올 가을 단풍 절정시기는 평년보다 3일 늦어져 광주와 전남지역 가을단풍 명소인 내장산과 월출산은 오는 23일께 절정을 이룰 것으로 보인다. 무등산은 30일 전후로 절정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4일 산림청 국립수목원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설악산에 단풍이 시작됐다.
단풍 시작일은 전체 나뭇잎의 20% 정도가 물들었을 때로 전체의 80% 정도가 물들면 단풍 절정기로 본다. 단풍은 북쪽에서 시작돼 백두대간을 타고 하루 20km씩 남하한다.
단풍 절정시기 분석은 우리나라 토종 단풍나무로 한라산에서 설악산까지 전국 모든 산에서 자생 중인 '당단풍나무'를 기준으로 했다.
국립수목원은 지역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겠지

만, 오는 26일 전국 대부분 산림이 붉게 물들며 단풍이 절정을 이룰 것으로 예측됐다.
전국적으로 단풍 절정시기는 평년보다 3일 가량 늦어질 것으로 예측됐다. 20일 지리산(세석)을 시작으로 내장산과 월출산의 단풍이 절정을 이루는 시기는 오는 23일, 완도 상황봉 31일, 무등산은 30일 전후로 예측됐다.
국립수목원이 지난 2009년부터 우리나라 산림의 단풍절정 시기를 관측한 결과, 연평균 0.4일씩 늦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단풍시기는 온도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해 여름 기온이 1도 상승할 때마다, 절정시기는 1.5일 씩 늦어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대 환경대학원 정수종 교수는 "식물에 단풍이 드는 시기가 늦어지는 것은 기후변화의 시그널로써 이는 기후변화가 식생의 생장리듬을 바꾸고 있다는 증거"라며 "우리나라 산림의 식물계절 변화

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단풍 절정 시기가 가까오는 데다 이달에는 한글날 연휴 등으로 단풍 관광객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국립공원공단은 코로나19 차단을 위해 이달 중순부터 한 달 동안 대형버스의 국립공원 주차장 이용을 금지하는 등 방역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 다.
한편 이날 광주와 전남 곳곳에서 30도가 웃도는 늦더위를 보였다. 4일 광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광주 30.8도, 나주 31.8도, 담양 31도, 화순 30.6도 등의 무더운 날씨를 보였다.
기상청은 5일과 6일에도 광주와 전남지역은 일 최고기온 30도 안팎의 높은 기온을 보일 것으로 예측했다.
기상청은 "따뜻한 남서풍이 불고 햇볕에 의해 기온이 올라 광주와 전남 내륙중심에 낮 기온이 30도 내외로 높은 상태에서 밤사이 기온이 내려가지 못해 아침 최저기온이 극값(10월 일최저기온 최고)을 기록한 곳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의원 운영 식당서 업무추진비 697만원 집행
허위 공가 신청자에 연가 보상비 지급까지...

광주시 감사위, 동구청 부당행정 22건 적발

광주시 감사위원회가 동구청에 대한 종합감사를 벌여 22건의 부당 행정행위를 적발했다.
4일 광주시에 따르면 22건의 지적사항에 대해 감사위는 주의 14건·시정 11건·통보 8건·기관경고 5건 등 38건의 행정상 조치를 시와 동구에 요구했

다. 주의 19건·훈계 8건 등 신분상 조치, 2328만원 과태료 부과와 2046만원 환수 등 재정상 조치도 중 복으로 이뤄졌다.
동구는 동구의원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2018년 8월부터 올 3월까지 64차례에 걸쳐 업무추진비 697

만원을 집행해 기관경고를 받았다.
건강검진 대상자가 아닌데 공가를 허가하고, 허위 공가 신청자에게 연가보상비를 지급하는 등 직원 복무 관리 소홀도 기관경고 대상이 됐다. 이밖에 도 전자식 전광판 설비 시공업체 선정 부적정, 대부분 행정처분 미이행, 계약 재공고 유찰 후 수의계약 부적정 체결, 무단건축 건축물 지방세 미부과, 무연고 사망자 유류금품 부적정 처리 등이 감사에서 적발됐다.
광주시 감사위는 동구가 2018년 6월부터 올해 3월까지 추진한 업무 전반에 대해 종합감사를 시행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코로나 조기 발견 전남행복버스 달린다

관광지·산업단지 등 취약지 방문 선제 검사...확진자 발견 성과

전남도는 이동식 임시 선별검사소인 '찾아가는 전남 행복버스'를 통해 숨은 확진자를 조기 발견해 지역감염 확산을 차단하고 있다.
4일 전남도에 따르면 전남행복버스 검체팀은 의료인력 3명, 행정인력 1명, 운전기사 1명, 총 5명으로 지난 8월 구성돼 지금까지 선제 검사 5512건을 진행, 숨은 감염원 1명을 발견했다.
주민 맞춤형 복지를 위해 도입한 전남행복버스는 코로나19 확산세가 가속되면서 이동식 임시 선별검사소로 한시 운영 중이다. 주요 관광지, 산업단지, 인구밀집지역 등 감염 취약지역을 방문해 선제 검사를 진행하거나 확진자가 집단으로 발생한 지역에 긴급 투입해 접촉자 전수검사를 신속 지원한다.
증상 여부와 관계없이 누구나 무료로 PCR검

사를 받을 수 있으며, 간이검사키트를 통해 15분 이내 검사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전남도는 감염 확산 차단을 위해 선제검사를 적극적으로 받을 것을 지속 권고하고 있다.
이를 위해 선별진료소 57개소, 임시시선별검사소 10개소, 이동식 검사소인 전남행복버스 운영 등을 통해 검사의 접근성을 확보했다.
또 취약시설 운영자·종사자 집단검사 행정명령도 시행 중이다.
외국인 고용사업장, 근해어업선박, 목욕장, 실내체육시설, 학원·교습소 등 운영자·종사자는 2주 1회 검사를 받아야 한다. 지난 9월 29일 사업장 선제 검사를 통해 외국인 확진자 3명을 조기 발견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멸종위기 '수달의 무덤' 고속도로

6년간 28마리 사망사고 발생...전남·전북 17건 '최다'

환경부가 4년 전부터 4대강의 보를 완전 개항하면서 최근 멸종위기 동물들이 많이 돌아오고 있는 가운데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고속도로에서 천연기념물이자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인 수달의 사망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수달 외에도 고라니 등 야생동물 고속도로 로드킬 사고가 꾸준히 발생하고 로드킬에서 교통사고로 이어지는 2차 사고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4일 더불어민주당 조오섭(광주북갑) 의원이 한국도로공사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6년간 발생한 고속도로 야생동물 로드킬 사고는 총 9373건으로 총남이 2034건으로 가장 많았고 충북 1562건, 경기 1476건, 강원 1346건, 경북 839건, 전북 755건, 경남

493건, 전남 369건, 대전 284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동물별 현황을 살펴보면 고라니가 8143건으로 가장 많았고 멧돼지 563건, 너구리 365건, 오소리 125건, 멧토끼 36건, 삿 35건, 노루 34건, 족제비 22건, 사슴 4건, 기타 46건 순이고 천연기념물인 수달 28건, 산양 1건으로 확인됐다.
이 중 천연기념물이자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인 수달은 2016년 3건에서 꾸준히 사고발생빈도가 높아지다가 올해 들어 8월말까지 벌써 7마리가 고속도로에서 죽었다. 수달의 로드킬은 전남 11건, 전북 6건 등 호남지역 고속도로에 집중됐고 이어 충남 5건, 경남 2건, 경북 2건, 충북 1건, 대전 1건 순이었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광주 북구·서구 '생활SOC 복합화사업' 공모 선정

광주시 북구와 서구가 국무조정실 주관 '2022년 생활SOC 복합화사업' 공모에 선정돼 각각 61억원과 49억원의 국·시비를 확보했다.
'생활SOC 복합화사업'은 체육관, 도서관, 주차장 등 다양한 시설을 한 공간으로 모아 복합적인 기능을 갖춘 생활밀착형 시설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이번에 선정된 북구 '운암동 생활SOC 복합화사업'은 총 사업비 114억 5000만 원을 투입해 구 경양초등학교 부지에 지하 1층·지상 3층(연면적 4000㎡)으로 건립된다. 오는 2024년까지 국민체육센터, 생활문화센터, 다함께돌봄센터, 주거지주차장 등이 조성될 예정이다.
서구는 문화·복지·건강 등 주민 일상생활 편의와 건강증진을 위한 사업들로 ▲양동 다목적센터 건립 ▲농성2동 공공복합정사 건립 ▲유덕동 버

들마을 다목적센터 건립 등 총 3개 사업이다.
이중 양동 다목적센터 건립은 기존 양동현장민원실 부지에 지상4층, 연면적 800㎡ 규모로 '생활문화센터'와 '건강관리실', '작은도서관'을 조성해 문화생활을 공유하고 지역단위 건강증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또한 농성2동 공공복합정사 건립은 옛 청사와 농성2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을 연계해 총 6개 층 중, 2개 층에 860㎡ 규모로 주민편의시설인 생활문화센터와 작은도서관을 추가로 조성하는 사업이다. 유덕동 버들마을 다목적센터 건립사업은 버들마을 내 우체국 부지에 지상3층, 연면적 990㎡ 규모로 주민건강을 위한 거점 역할을 하는 건강생활지원센터와 자치 프로그램 활동을 위한 생활문화센터를 조성하게 된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이제는 내일에 투자합니다!

최소금액 500만원 투자로
안정적인 재테크

내일을 위한 보험! 안정적인 고수익 투자!
투자만으로 수목장 자연장지를 선분양

은행이자

갈수록 떨어지는 금리
이제는 마이너스 금리시대
평균 31~51만원

부동산 투자

수요와 공급의 역전
텅텅 비어버린 부동산들
평균 30~50만원
(임대되었을시)

친환경장묘문화(주)투자

안전성 보장
실제 운영하는 수목장의
장원장지를 분양도 받고
수익까지 창출하는
미래형 재테크

친환경장묘문화(주) ☎ 062) 412-2800